

제 106호 교수님의 권위 2

지난 호에 권위는 일반적으로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는 지식권위, 직책권위, 권력권위가 두루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에게 이 세 종류의 권위가 동등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십시오.

1. 지식권위는 필수로, 직책권위와 권력권위는 부차적으로 생각한다.

도올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 강의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의 강의에 많은 시청자들이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 분이 무슨 명문대 교수이거나 (직책권위가 있거나), 열심히 듣지 않으면 벌을 받기 (권력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지요. 도올의 권위는 주로 방대한 지식에서 비롯합니다. 하지만 도올은 자신이 동경대와 하버드대를 다녔다는 사실도 상당히 자주 언급합니다. 이 말을 듣는 시청자들은 세계 최고 명문대의 권위를 암암리에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도올의 명문대 박사 학위는 직책권위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의 강의 스타일에는 권력권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누가 도올의 강의 내용에 도전하고 싶어도 선 뜻 못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질문 하나 했다가 본전은커녕 무안 당할까봐 겁이 나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성숙한 학자들끼리라면 서로 예리한 질문과 빈틈없는 비판을 하여 학문의 경지를 높여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직책권위와 권력권위는 압도적인 지식권위에 비하면 부차적이라 하겠습니다.

2. 권력권위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학생들의 성적을 교수님께서 주기 때문에 교수님의 권력권위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무리 내색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교수님의 권력권위를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교수님께서 그 이상의 권력권위를 내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방법이 여럿 있겠지만 그 중 시험을 못 보면 낙제시킬 것이라는 으름장은 필요 이상의 권력권위 행사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행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수님의 으름장이 격려대신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가 대립적이라면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3. 지식권위에 투자한다.

사실 교수님의 직책권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노조가 등장하고 있는 것 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권력권위도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초중고에는 체벌금지가 되어 있고, 교수님께서 대학생을 야단치는 풍경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은 것은 지식권위 밖에 없습니다. 지식권위라고 하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시대 발상). 새시대의 지식권위는 지식을 선별(판단)하고, 종합(통합)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